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티모르사전





미식박사  
Anis



진지박사  
Lopes



언어박사  
Betí



홍박사  
Fina



라운아띠! 12월에는 어떤 일이?

뽀뚜뚜 마을에서 딜리로 다시 돌아오다?

비자 트립을 가다?

카페에서 청년 활동을 시작했다 던데?

한여름 밤의 크리스마스?

조디 간사님의 조카 들잔치에 가다?

알면 쓸데없는 신비하고 잡다한 영사님의 강의?

아띠끼리의 송년회?



알쓸티잡

티모르 12월 이야기

RaonAtti

일단 일정표부터 보고 가시죠~!





| DOMINGO              | SEGUNDA                        | TERSA | KUARTA | KINTA                                                  | SESTA                                                    | SABADU |
|----------------------|--------------------------------|-------|--------|--------------------------------------------------------|----------------------------------------------------------|--------|
|                      |                                |       |        |                                                        | 1<br>로꾸꾸->딜리                                             | 2      |
| 3<br>비자트립 계획         | 4<br>비자트립                      | 5     | 6      | 7                                                      | 8                                                        | 9      |
| 10                   | 11<br>피스카페<br>청년활동 계획 및<br>준비  | 12    | 13     | 14                                                     | 15<br>피스카페<br>청년활동 홍보                                    |        |
| 17                   | 18<br>• 피스카페<br>청년활동<br>• 일손돕기 | 19    | 20     | 21<br>• 피스카피<br>수출작업 돕기<br>• YMCA 센터<br>크리스마스<br>행사 참여 | 22                                                       |        |
| 24<br>31<br>아피끼리 송년회 | 25                             | 26    | 27     | 28<br>조디 간사님<br>가족 행사 참여                               | 29<br>외교의전과 생활<br>매너, 와인 특강<br>-주 동티모르<br>대사관 이철희<br>영사님 | 30     |



알쓸티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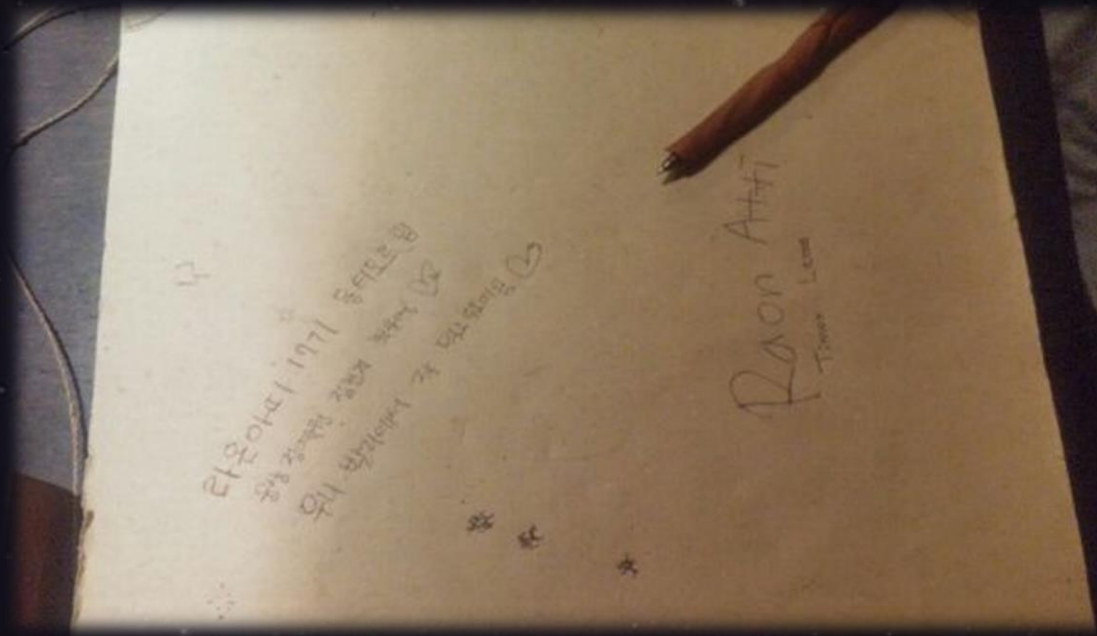
비자 트립

RaonAtti

비자 트립







아띠박사들은 무사히 발리로 비자트립을 다녀왔다.  
 아띠박사들은 발리 꾸파에서 4박5일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휴식도  
 취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비자연장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  
 다시 딜리로 돌아왔다고 한다.  
 자세한 일정내용은 아띠박사들에게 직접 물어 보시길...





언어박사  
Beti



미식박사  
Anis

비자연장을 목적으로 간 발리였지만 간 김에 발리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유를 즐기다 와서 12월 활동에 앞서 재충전을 할 수 있었어!

맞아 맞아 특히 발리만의 독특한 거리를 거니는 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너무 행복했어.  
사실 발리 자체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온 중게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게 많은 힘이 됐어.

발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아시아의 한 지역사회이기도 하지.  
비자트립을 통해 다른 아시아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

맞아. 특히 기억나는게 발리에 힌두, 이슬람, 불교 그리고 중국식 사원까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나름대로  
발리만의 방식으로 다 함께 공존해나간다는 느낌을 주었어.



홍박사  
Fina



진지박사  
Lopes

알쓸티잡

카페 활동

RaonAtti



카페 활동





아티박사들은 피쓰카페 2층에서 2주동안 진행할 청년활동을 계획했다.  
350ppm, 국제이슈에 관한 스터디&난장토론, 공정무역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서  
확자기결한 카페를 만들고 현지 청년들과 문화를 교류하고자 했다.

활동 시작 전, 홍보를 위해 아티박사들은 직접 만든 포스터를 널리 곳곳에 부착하고,  
관계를 맺어왔던 친구들에게 브로셔를 나눠주었다.



RaonAtti

Natal lori ksolok no ksolok lori kolega!



### Actividade Introdusaun



Tempu: 2017.12.18~2017.12.28  
(Actividade laiha 12/24-25)



Fatin: 2<sup>nd</sup> rai Loja café



Content: Ice breaking – Konyese malu, Halimar jogu  
Heart-warming day – nonton sasan diak  
Korean day – K-pop, aprende kultura korea  
Discussion day – aprende hamutuk konaba  
kestaun(issue), diskusaun  
Fair trade day – aprende feira kontratu liu  
halimar jogu  
Campaign – 350ppm, end poverty  
X-mas tree Decoration – halo furak ai-natal



To You



🎄 Natal lori ksolok no ksolok lori kolega 🎄



From Raonatti



To. kolega

Bondia kolega!  
Ami Raonatti husi korea.  
"Raonatti" nia significa mak "kolega diak".  
Ami hakarak hasoru no mos halo actividade  
hamutuk ho ita.  
Entaun ami prepara programa oi-oin.  
Nee tebes diak! Komiki Kapaasi Jetul Gayal  
Makaas!  
Ami hakarak troka esperiensa husi ami nia  
kultura ho ita nian.

Natal lori ksolok no ksolok lori kolega! 😊

From, Raonatti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 <p>18</p> <p>서로 알아가는 시간</p> <p>: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진행</p> | <p>19</p> <p>영상 보기</p>                                       | <p>20</p> <p>영상 보기</p>                                                  | <p>21</p> <p>스터디</p> <p>:한국전쟁과 국제 평화에 대한 영어 자료 스터디 및 의견나누기</p> | <p>22</p> <p>난장토론</p> <p>:역할 게임을 통한 전쟁과 평화에 대한 나눔</p>    |
| <p>25</p> <p>크리스마스</p>                             | <p>26</p> <p>Korean day</p> <p>:한국어 표현 익히기와 k-pop 따라 부르기</p> | <p>27</p> <p>350ppm</p> <p>:지구 온난화현상에 대한 스터디와 포스터 제작, 티모르 환경 문제 나누기</p> | <p>28</p> <p>인원부족으로 활동불가</p>                                   | <p>29</p> <p>공정무역</p> <p>:역할게임과 스피드퀴즈 등을 통한 공정무역 스터디</p> |



처음 청년활동을 시작 할 때는 피쓰카페가 정말 왁자지껄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니 점점 활동에 참여하러 오는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참여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예 사람이 오지않아 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적도 있었다.  
열심히 준비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점이 아쉬웠다.





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2층에서는 카페활동을 하고, 같은 기간동안 1층에선 매일 두 사람이 카페 일손을 도왔다.  
크리스마스 연휴엔 대부분 티모르 사람들이 휴가를 간다.  
세 사람이 일하는 카페에서 매일 한 사람씩 번갈아 쉴 수 있도록 그 빈 자리를 아피 박사들이 채웠다.





12월의 피쓰카페는 커피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으로 분주했다.  
로뚜뚜에서 딜리로 커피를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피쓰커피는 수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했다.  
요리박사와 진지박사는 커피자루를 차곡차곡 컨테이너에 쌓는 작업을 도왔다.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커피량이 작년의 1/10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언어박사  
Beti

2주 간의 카페 활동은 그 기간만큼 임팩트가 짧고 강렬했던 것 같아. 카페 활동 준비 기간에는 시간이 분명 많았던 것 같은데 어느새 정신차려보니 매일매일 활동 준비를 닥쳐서 하는 내 자신이 슬펐어. 하지만 준비한 아이템이 모두 잘 진행돼서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어.

진지박사  
Lopes

티모르에서 했던 활동이 대개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었는데, 이 활동은 특히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준비보다 애드립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더 쓴 것 같아.

피스커피 카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야. 그 곳에서 왓자지껄한 청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기대를 많이 했어. 막상 활동에 들어가니 찾아오는 사람이 매일 일정하지 않아서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더라. 강호간사님이 활동 인원 수는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준비했던 활동을 못 할 때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 있지.

미식박사  
Anis





홍박사  
Fina

개인전으로 이번 피스카페에서의 청년활동에 기대를 갖고 있었어.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아쉬움도 컸던 것 같아. ‘좀 더 활동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했다면’ 부터 시작해서 아쉬움이 많아. 그래도 많은 청년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점은 재밌었어.

맞아 맞아. 나는 특히 티모르 친구들이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나한테 이야기해줄 때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했을 때가 기억에 남아. 티모르의 역사는 한국에 비해서 짧지만 여러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단 걸 다시 한 번 느꼈어.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산림의 황폐화가 딜리의 가장 큰 환경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러 간다고 말씀해 주셨어. 그 말을 들으면서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이 나름대로 플랜을 짜서 액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  
역시 내가 아직도 티모르에 대해 모르는 게 많~청 많구나!



미식박사  
Anis

나도 그래. 다음에도 기회가 생긴다면 떠나기 전에 청년활동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리고 일손을 도왔던 일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 특히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컨테이너 안의 카페 선적을 도왔던 게 기억이 많이 남아. 이상기후로 인해 커피 수확량이 많이 떨어진 건 알고 있었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커피 포대로 가득 찼던 컨테이너가 반도 안 찬 걸 보니 씁쓸했어.



언어박사  
Beti



진지박사  
Lopes

피스커피 내수시장에서 일도 해보고 직접 수출 작업을 도울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진 값진 시간이었어. 마웅들과 차곡차곡 커피 포대를 나른 뒤 끝나고 그 위에서 즐겁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자리는 내가 있으면 안 될 자리였어.  
거기에는 커피가 있었어야 돼...



홍박사  
Fina

ㅋㅋㅋㅋ그 때 수고했어. 카페 일손 돕기는 같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재밌었어. 특히 마웅 다빛과 손님이 없을 때마다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즐겁게 이야기를 잘 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카페에서 내가 몰랐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들과 같이 활동을 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었어!  
그래서 카페는 언제나 같 때마다 즐거웠어~  
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은 손님이 조금만 있더라. ㅠㅠ 그것도 한국이랑 다르네.



언어박사  
Beti

맞아! 12월은 연휴가 길어 활동이 별로 없었어. 그러던 중 카페 일손 돕기가 나의 심심함을 많이 채워줬지ㅎㅎ. 카페직원인 마웅 마나들과 즐겁게 일하면서 커피 만드는 법도 배우고, 티모르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었어.  
또 공정무역 피스크카페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지.



알쓸티잡

딜리 생활

RaonAtti



딜리 생활



아피박사들의 현지 코디네이터 조디 간사님.  
 조디 간사님 조카 돌잔치에 놀러 간 아피박사들.  
 가벼운 식사자리로 알고 갔지만 마을 잔치처럼 사람들이 북적였다.  
 아피박사들은 음식도 많이 먹고 흥이 많이 났다.  
 갑자기 진지박사가 흥에 못 이겨 진지하게 춤을 췄다고 한다...





야생의 아피박사들 앞에 (잡학박사) 이/가 나타났다!!  
아피박사들은 주 동티모르 대사관 이철희 영사님의 외교의전과 생활매너, 그리고 와인 특강을 들었다.  
알고 있으면 쓸모 있을 것 같은 잡다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아피박사들은 YMCA 센터 크리스마스 행사에 갔다.  
 센터 아이들이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고, 센터 청년들이 준비한 연극도 관람했다.  
 비가 심하게 오는 와중에도 곳곳이 열연을 펼치는 청년들이 인상적이었다.  
 아이들도 오랫동안 준비한 춤과 연주를 선보였는데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박사들은 감동했다!





언어박사  
Beti

이번 달 딜리는 정말 더워서 연말이 다가온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  
그런데 곳곳마다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니까 기분이 묘해졌어.



미식박사  
Anis

이번 연휴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 연말이 왁자지껄했어.



흥박사  
Fina

맞아. 이번 달 딜리에서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연휴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먹었지. 자꾸 미식박사와 진지박사가 살 찼다고  
놀리는데 운동 열심히 해야 겠다. ^^



언어박사  
Beti

정말 연말 느낌 안 나더라. 2018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  
그래도 마웅조디 집도 가보고 다른 사람들이랑 노는 자리에 갈 수 있어서  
그동안 참았던 흥을 조금 분출한 것 같아.

한국에 있었다라면 늘 그랬던 것처럼 집에서 쉬며 새해를 맞이했겠지?  
남반구에서 맞이하는 여름의 크리스마스와 새해는 처음이라 그런지  
더 낭만적이고 특별했어. (사뭇 진지)



진지박사  
Lopes



미식박사  
Anis

인호야 지명아 혹시 이거 보고 있니? 우리 이제 스물 일곱이 됐어.  
(언어박사, 진지박사, 흥박사는 자리를 떴다...)  
하하!! 취업해야 돼...곧 있을 설에 눈치 볼 각오하고 있니? 하하하!!!!



# 개인'에세이'



어느새 마지막 보고서다. 최종 보고서를 제하면 마지막 월 별 보고서이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보면 2017년 한 해의 끝이기도 하다. 그동안 '마지막'과 '끝'이라는 두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문득 드는 것은 아쉬운 마음에 애써 새로운 시작이라고 여겼다. 그렇지만 이번 12월은 '마지막이다'라고 내 마음이 준비하기도 전에 정말 어느새 지나갔다. 돌아보면 늘 빠른 시간의 흐름이 이제는 자연스러울 법도 한데, 티모르의 로페즈는 아직도 이 흘러감에 적응을 못 한 모양이다. 8월의 광주에서도 너무 아쉬운 마음에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다고 했다. 4개월이 지난 티모르에서도 똑같이 이른다. 다 아쉬우니까 하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으니까!

12월 초에는 비자 연장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다녀왔다. 비자 연장이라는 목적과 더불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동티모르가 아닌 다른 아시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비자 트립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아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정말 잘 먹고, 잘 보고, 잘 자고 왔다. 작은? 해프닝도 있었지만 발리에서 팀원들과 함께 했기에 더 즐거웠다. 좋은 건 같이 해야 더 즐겁지. 그럼그럼 😊





이번 달은 특히 피스커피 내수시장인 카페에 가서 아래층에서는 일손을 돕고, 위층에서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페에 가면 늘 우리를 가족처럼 품어주는 정겨운 사람들이 있다. 한번은 마웅 다빏과 잠깐 연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티모르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은 흥미로운 소재임이 분명하다. 그 중 티모르에서 너무 유명한 결혼 관습인 지참금 이야기를 했다. 로스팔로스라는 지역의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 처갓집에 소 77마리를 줘야한다는 많은 티모르 사람들로 부터 들었던 이야기다. 지역마다 결혼 관습이 다른데, 유독 로스팔로스는 여자가 하얗고 키 크고 예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으. 너무 가혹하다. 소를 살 능력이 없으면 어디 도망이라도 가야하는 것인가? 다빏이 말하길 그래도 이 관습이 요즘은 거의 없고 시골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갑자기 하늘에서 사랑비가 내린다. 외로운 남자 둘의 대화 중 나의 이상형으로 화제가 번졌다. 다빏은 예쁜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 등 여러 예시를 들어주었다. 내가 그 중 제일은 마음이 맞는 사람 아니겠냐고 대답하자 다빏은 잇몸 만개 웃음을 보이며 나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 날 사랑비가 정말 많이 내렸다. 9월 카페 일손을 도울 때만 해도 이렇게 사랑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었는데, 나의 떼뚱어 선생님이기도 한 다빏을 비롯한 피스커피 스태프들에게 늘 감사하다.





약자지꼴한 카페를 만들기 위해 아띠들이 정성스레 기획한 청년활동에서는 티모르 청년들과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350PPM과 환경,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온리원이 스페셜 원이었다.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는가 그것은 이번 활동에서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다. 나 같은 경우는 아이들보다 청년들과 대화하는 편이 어려웠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에 조금 진전이 있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카페 청년활동을 진행해보고 싶다.

이제 티모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남았다. 12월의 티모르는 설레고 새로웠다. 2018년 1월의 티모르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된다.





12월. '이제 4개월 정도 살았으니 생활에, 활동에 다 적응했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나 보다. 좋게 말하면 '여유롭게'. 솔직하게 말하면 '게으르게', '뭐 될 대로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했던 것 같다.

비자트립을 갔다 와서 나의 몸은 재충전이 되었지만 오히려 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정신에 있어선 기가 빨랐다. 발리의 여유로움에, 편안함에 한동안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러던 중 카페활동을 시작하였다. 피스카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공정무역 사업장으로서 생산지 나라 사람들이 커피문화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곳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다. 그런 장소에서 라온아피가 직접 청년활동을 기획하여 왓지지껄한 카페를 만든다는 것에 나는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대만큼이나 내가 활동준비에 대한 노력을 했나 하는 의문이 든다. 활동자체만 보자면 콘텐츠도 다양했고, 아이템도 좋았고, 무난하게 잘 진행되었다. 그런데 청년활동에 대해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크다. 좀 더 내가 활동에 애정과 열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했더라면 더 재밌었을 텐데 하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던 활동이었는데 4개월의 활동에 익숙해져버린 탓에 느슨해져, 활동에 애정을 별로 쏟지 못했던 것 같은 아쉬움이 든다.





12월 딜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코이카, UN, 대사관 등등. 우리또래부터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해온 사람들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티모르 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 또 활동에 대한 피드백 등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깐 동안 느꼈던 '활동에 대한 무기력', '무의미한 감정'들을 정리 할 수 있었다. 또 충전된 에너지는 나를 다시 티모르생활과 활동에 애정을 갖게끔 만들었다. 나의, 라온아띠의 활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나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활동에 집중하고자 한다!





12월 한 달은 어영부영 하루하루가 지나가 통째로 날라간 느낌이 듭니다. 이번 달 초에 정말 큰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국내훈련때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차라리 한국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지 말 걸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만, 곧 할머니를 더 이상 뵙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를 천천히 받아들이기 전에 일정상 다음날 비자트립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가족들이 계속 생각나서 여행을 즐길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냥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난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고, 간사님과 부모님은 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지만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할머니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설명했습니다. 사실 팀원들에게 내가 필요한 도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감과 위로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는 팀원들과 같이 먹고 자는 식구로서 생활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기쁨과 슬픔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라는 믿음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팀원들이 내 상황에 대해서 공감과 위로를 잘 주고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섭섭했고 속상했습니다. 감정적인 면에서 에너지 소진이 많아지자 자연스레 팀원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 활동을 준비하는 팀 미팅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조차 거북했고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내 감정과 생각을 전하는 것도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자 그동안 느꼈던 내 감정과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팀원들은 자신들 입장에서 나에게 필요할거라 생각했던 걸 하려고 했고, 표현 면에서 서툰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난 이 피드백이 진심이라고 믿고,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 된다면 되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카페활동에 대해서는 부담감과 즐거움이라는 기억이 떠오릅니다. 처음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었고 카페라는 공간을 좋아하기에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년들과 프리토킹을 할 만큼 내 떼똥어가 좋지 않다는 것과 제 시간에 시작하기 어려운 티모르 문화, 연휴로 적게 오는 손님들 등등 내가 부족하거나 간과한 점은 무엇인지 매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활동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짜증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와준 게 고맙고, 늦게라도 활동을 같이 할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 내 또래와 만났다는 것 자체가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문화, 역사, 가치관을 나눌 수 있었기에 티모르와 티모르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이번 활동의 보람과 의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한 12월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내내 무언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1월은 중심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사는 마무리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할가분한 마무리를 위해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텐데, 어느새 너무 게을러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로뚜뚜마을에 가면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해서 또 열심히 의견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야지 다짐합니다. 느린 듯 빠른 시간이 흘러갔다는 게 고맙게 느껴집니다.



아마 중간격려가 끝나고부터일 것이다. 내 안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이 조금씩 느슨해 지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은. 티모르에 온 이후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달려오다 오랜만에 휴식을 취해서일까? 긴장감이 느슨해 지고 사라질 수록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로가 몰려 왔다. 그리고 피로가 몰려온 만큼 처음에 가졌던 열정은 사라지고 점점 나태해졌다. 이전에는 하나라도 더 경험해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움직이려 했건만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다. 또한 이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배우기 위해 어떻게든 나만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추구하고자 했다면 지금은 ‘아휴, 저게 뭘 의미가 있다고... 그게 꼭 필요해?’하는 생각을 자주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티모르에 익숙해진 거일 수도 있고, 전보다 조금 점잖아진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저 초심과 열정을 잃었을 뿐이다.

비자트립, 카페활동 등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면 어떻게든 힘을 내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자 했다. 하지만 비자트립에서 발리의 정 떨어지는 상인들을 마주하고, 카페활동에서 배신감을 안겨주는 청년을 마주했을 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무의미해 졌고, 아무 것도 하기 싫어 졌다.





내 자신이 이런 상태다 보니 어느 순간부턴 활동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평소보다 더 섬세할 필요가 있었던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후회가 많이 된다. 왜 난 그때 그렇게 밖에 못했고, 또 지금은 이런 건지.....

난생 처음으로 따뜻하다 못해 더운 연말과 새해를 보내며 많이 생각했다. 지금까지 내가 왜 이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라온아띠를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더욱 소중히 대할 수 있을 지. 수많은 생각 끝에 내놓은 대답은 뻔하지만 정론처럼 느껴지는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는 대충 계획을 세웠다.





곧 있으면 다시 로뚜뚜에 간다. 앞서 말한 계획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무대에 오르는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계획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 아마 이 12월 달을 활동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잠깐 숨을 고른 시간이라 기억할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의 상태로 남는다면 라온 아띠가 끝난 이후 오랫동안 후회만 할 것 같다.

최종보고서를 완성하고 다시 한 번 한국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기대 된다. 과연 그 때 나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 내 라온아띠 활동은 너무 즐거웠고, 아쉬운 점은 있어도 후회는 없다고 이야기하게 될까? 아니면 너무 후회가 많아 라온 아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가슴이 아려 아예 입을 꼭 다물게 될까? 어떤 말을 하게 될 지 지금은 절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진심으로 웃고 싶다. 그리고 지금의 팀원들과 티모르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즐겁게 이 날을 추억하고 싶다.

부디 지금의 소중한 나날과 앞으로 다가올 아름다운 순간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





# 12월 사진전







1



12월 사진전에 온 걸 환영한다, 님겐 .



2



(인간 시점): 왈왈왈아아아아왈왈왈!!!!!!





3



엄마 밥 줘 냥



4



배부르다 냐옹 졸리다 냐옹





5



자연스럽게 웃어 애들아 친해 보이게 ^.^



6



커피 분류 작업을 돕는 동네 꼬마들





7



일꾼1은 열심히 커피 포대를 나른다.



8



경 30kg 감량 **축**





9



★위풍당당★ 양만두



10



비 오는 날 멀리 거리에서...





11



서로 닮아가는 우리.



12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  
우리는 라온아띠입니다.





13



매너손



14



가슴손





15



공정무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아요~



16



350PPM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아요~





17



마웅 베니와 함께



18



다정다정 V^ - ^V





19



환영합니다 고객님 여기는 피스카페입니다~



20



피스카페 감찌기 ^w^





21



언어박사: 꼬삐야 집에 들어오면 안 돼~



22



꼬빼: 어리석구나 닝겐。  
나는 나보다 약한 자의 말은 듣지 않는다。





23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  
당신들이 진정한 라온아띠입니다.



24



리모르의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25



포에 (우디스 간사님 아들)



26



미식박사 깜짝깜짝





27



오랜만에 돌아온 인스타 감성~



28



그 뭐고 사진전 끝났다.  
마웅 에두: sin~



*Hakso lok Jinan Foun!*  
*Happy New Year!*





알쓸티잡

굿바이 사피오티모르

RaonAtti

Ate fulan oin ~  
다음달에 봐요~

